

#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분석

신동준 · 류지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통계센터 한국교육고용패널팀



#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가 분석

## 《요 약》

- 청년층의 높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준비를 파악하고, 일자리 기대 수준과 실제 취업 수준의 미스매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본고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7차(2010)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취업준비 실태 및 실제 월급과 기대 월급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함.
- 대졸자는 정규직에 대한 취업준비가 가장 높고, 최소 기대 월급은 170만원임.
  - 대졸자의 66.3%가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근무시간 규칙 직장 선호'(64.9%), '통근 수월 직장 선호'(59.6%)가 높음.
- 취업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대학소재지', '대학전공계열', '임사·일용직의 경험', '자격증 수', '해외연수 경험', '거주지 규모'임.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준비가 높았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보다 취업준비가 높았음.
  - 임사·일용직 경험이 없는 경우,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또는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준비가 높음.
- 취업자의 실제월급과 최소 기대 월급을 비교해보면, 실제월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설문문항이 취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최저 월급을 응답하게 한 결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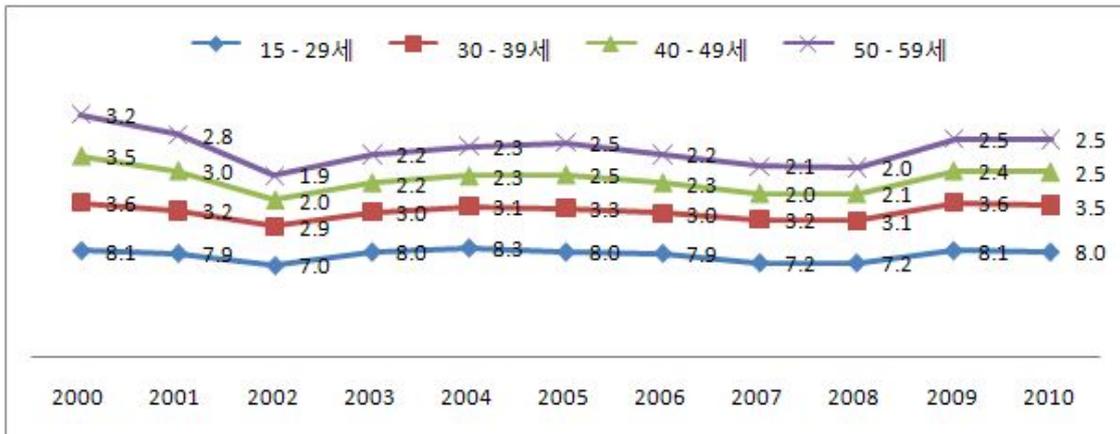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 분석

## I. 문제제기

▣ 청년층의 실업률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임.

-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과 관련하여 10년간 데이터를 살펴보면, 1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최저 7%에서 최고 8.3%까지로 나타나 전체 실업률(3.5%)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그림 1] 연령층별 실업률 추이

-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높은 실업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자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 대졸 청년층의 일자리 기대수준과 실제 취업수준의 미스매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함 실마리임.

- 노동시장의 고용의 질(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구직난과 인력난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음.
- 청년층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구직활동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보이며, 기대월급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사회적으로 한정된 일자리에만 인력이 모임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고른 산업과 직종이 발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졸업 전부터 학업보다는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점, 대기업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과 어학연수 등 스펙 쌓기에 집중하는 점을 들 수 있음.

▣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취업준비 실태 및 실제 월급과 기대 월급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함.

<KEEP 개요>	
○ 목	적: 청년층의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성 및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
○ 조사시기:	2004년부터 매년 추적 조사(매년 7~11월, 5개월간)
○ 조사대상:	2004년 중학교 3학년, 전문계·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2007년 전문계고 3학년, 특목고 3학년 추가)
○ 조사내용:	학교생활, 진학계획, 가정생활, 여가생활, 구직활동, 취업여부와 현 일자리, 취업의사 및 준비, 직장경력, 교육훈련, 진로계획, 일반적 특성 등

## II. 분석 자료 및 내용

▣ 본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조사의 7차(2010)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졸자의 취업준비 실태를 분석함.

● 7차년도 KEEP 조사에서는 취업준비 문항(16개 문항)을 조사함.

- 취업준비 문항은 최소 기대 월급 및 일자리 위치, 규모, 고용형태, 근무환경 등에 대한 16개 문항으로 구성됨.

취업 준비 문항		
항 목	예	아니오
1) 나는 월급이 최소 _____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_____만원
2) 나는 수도권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3)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4) 나는 도시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5)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6) 나는 중소기업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7) 나는 대기업, 외국계 기업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8) 나는 공기업, 공무원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9) 나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10) 나는 나의 학벌이나 학력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11) 나는 나의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12) 나는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13) 나는 사무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14) 나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15) 나는 통근이 수월하지 않은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16) 나는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	①	②

- 7차년도 취업준비 문항에 응답한 대졸자 1,447명(2년제 762명, 4년제 68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대졸자의 요인별(성별, 대학전공계열, 대학소재지, 출신 고교계열, 거주지역 규모 등) 취업준비 실태를 분석함.
  - 대졸자의 취업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취업자의 현 실제월급과 최소 기대 월급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

### Ⅲ. 분석 결과

- ▣ 대졸자는 정규직을 가장 높게 선호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주 5일제 근무’ 등 근무환경과 ‘통근 거리’, ‘도시 소재’ 등 지역적 요인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졸자의 66.3%가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조건에 비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근무시간 규칙 직장 선호’(64.9%), ‘통근 수월 직장 선호’(59.6%), ‘주 5일 근무 직장 선호’(46.2%) 등 근무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벌, 학력 수준 적합 직장 선호’(39.7%),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직장 선호’(37.6%), ‘도시 소재 직장 선호’(35.5%)에 대한 선호도는 35~40%정도 수준이고, ‘수도권 소재 직장 선호’, ‘사회적 인정 직장 선호’, ‘전공분야 일치 직장 선호’에 대해서는 30%정도가 선호하고 있음.
  - 취업준비 중에서 ‘서울 강남 소재 직장 선호’(3.5%), ‘공기업, 공무원 선호’(5.0%), ‘대기업, 외국계 기업 선호’(7.2%)는 10% 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 ▣ 대졸자의 최소 기대 월급은 170만원이며, 4년제 대졸자가 2년제 대졸자 보다 16만원정도 높은 수준임.

- 학력별로 보면, 2년제 대졸자가 162.2만원, 4년제 대졸자가 178.4만원으로 나타남.
  - 2년제 대졸자의 최소 기대 월급은 4년제 대졸자에 비해 15.9만원 낮은 수준이며, 이는 4년제 대졸자의 최소 기대 월급의 91.1%에 해당하는 수준임.

<표 1> 취업준비('예' 비율): 학력별

단위: %

문항	2년제 대졸자	4년제 대졸자	전체
수도권 소재 직장 선호	32.0	30.1	31.1
서울 강남 소재 직장 선호	3.9	3.1	3.5
도시 소재 직장 선호	33.1	38.2	35.5
사회적 인정 직장 선호	26.5	36.1	31.0
중소기업 비선호	10.6	16.1	13.2
대기업, 외국계 기업 선호	5.2	9.3	7.2
공기업, 공무원 선호	3.9	6.1	5.0
육체적 힘든 일 비선호	33.9	41.8	37.6
학벌, 학력 수준 적합 직장 선호	31.8	48.5	39.7
전공분야 일치 직장 선호	28.3	30.8	29.5
정규직 선호	63.9	68.9	66.3
사무직 선호	19.3	29.5	24.1
주 5일 근무 직장 선호	42.1	50.7	46.2
통근 수월 직장 선호	57.6	61.8	59.6
근무시간 불규칙 직장 비선호	64.8	65.0	64.9
최소 기대 월급(만원)	162.5	178.4	170.0
15개 문항 총점(점) <sup>13)</sup>	4.57	5.36	4.94
N(명)	762	685	1447

- 남성 대졸자는 '정규직 선호'(68.0%)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근무시간 규칙 직장 선호'(58.5%), '통근 수월 직장 선호'(53.3%)가 많았으며, 이에 반해 여성 대졸자는 '근무시간 규칙 직장 선호'(73.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통근 수월 직장 선호'(68.2%), '정규직 선호'(63.9%)가 높았음.

13) 취업준비 문항 중 '최소 기대 월급' 문항을 제외한 15개 문항의 총점임.(예: 1점, 아니오: 0점)

- 여성 대졸자는 ‘주 5일 근무 직장 선호’,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직장 선호’, ‘학벌, 학력 수준 적합 직장 선호’에 대한 선호도가 50~54%정도 수준으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최소 기대 월급은 남성이 186.9만원, 여성이 146.8만원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40.1만원 더 높은 수준임.
  - 여성의 최소 기대 월급은 남성의 최소 기대 월급의 78.5%에 해당하는 수준임.
  - 학력별 차이를 보면, 2년제 대졸자 남성 176.4만원, 4년제 대졸자 남성 198.3만원으로, 4년제 대졸자 남성이 2년제 대졸자 남성보다 21.9만원 높은 수준임.

<표 2> 취업준비('예' 비율): 학력별 & 성별

단위: %

문항	2년제 대졸자		4년제 대졸자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수도권 소재 직장 선호	25.2	40.9	27.2	34.3	26.2	37.9
서울 강남 소재 직장 선호	3.2	4.8	2.0	4.6	2.6	4.8
도시 소재 직장 선호	26.6	41.5	32.6	46.4	29.5	43.8
사회적 인정 직장 선호	21.5	33.0	35.1	37.5	28.1	35.1
중소기업 비선호	9.0	12.7	18.0	13.2	13.4	13.0
대기업, 외국계 기업 선호	5.3	5.2	10.4	7.9	7.8	6.4
공기업, 공무원 선호	3.7	4.2	3.7	9.6	3.7	6.7
육체적 힘든 일 비선호	24.1	46.7	30.1	58.6	27.0	52.1
학벌, 학력 수준 적합 직장 선호	22.0	44.5	42.5	57.1	31.9	50.3
전공분야 일치 직장 선호	23.1	35.2	29.4	32.9	26.2	34.1
정규직 선호	62.7	65.5	73.6	62.1	68.0	63.9
사무직 선호	12.5	28.2	25.9	34.6	19.0	31.1
주 5일 근무 직장 선호	34.0	52.7	48.1	54.3	40.9	53.4
통근 수월 직장 선호	49.5	68.2	57.3	68.2	53.3	68.2
근무시간 불규칙 직장 비선호	56.5	75.8	60.7	71.1	58.5	73.6
최소 기대 월급(만원)	176.4	144.2	198.3	149.9	186.9	146.8
15개 문항 총점(점)	3.79	5.59	4.97	5.92	4.36	5.74
N(명)	432	330	405	280	837	610

-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계열의 51.4%가 ‘예’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의약계열 50.9%, 예체능계열 32.6% 이며, 공학계열이 24.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학 전공계열별 최소 기대 월급을 살펴보면, 의약계열이 182.3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176.9만원, 자연계열 166.4만원이며, 교육계열이 157.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 취업준비(‘예’ 비율): 대학 전공별

단위: %

문항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수도권 소재 직장 선호	40.5	34.3	18.1	28.1	29.8	24.6	39.5
서울 강남 소재 직장 선호	4.8	3.2	1.4	2.3	3.5	5.3	6.4
도시 소재 직장 선호	50.0	37.0	33.3	34.8	31.9	32.5	38.4
사회적 인정 직장 선호	33.3	32.4	30.6	31.5	32.6	26.3	30.8
중소기업 비선호	13.1	12.5	22.2	14.8	14.2	11.4	9.9
대기업, 외국계 기업 선호	6.0	6.6	11.1	10.0	6.4	5.3	4.7
공기업, 공무원 선호	4.8	5.9	26.4	3.8	2.8	1.8	1.7
육체적 힘든 일 비선호	41.7	41.0	52.8	32.7	38.3	40.4	35.5
학벌, 학력 수준 적합 직장 선호	42.9	40.7	51.4	36.6	44.7	48.2	35.5
전공분야 일치 직장 선호	27.4	25.3	51.4	24.0	26.2	50.9	32.6
정규직 선호	58.3	67.8	69.4	71.9	62.4	65.8	58.1
사무직 선호	35.7	33.8	31.9	20.7	22.7	13.2	15.1
주 5일 근무 직장 선호	52.4	50.5	40.3	47.1	40.4	41.2	46.5
통근 수월 직장 선호	61.9	59.3	52.8	61.4	57.4	57.0	61.6
근무시간 불규칙 직장 비선호	66.7	60.9	69.4	62.4	65.2	74.6	68.6
최소 기대 월급(만원)	160.6	165.6	157.5	176.9	166.4	182.3	163.9
15개 문항 총점(점)	5.39	5.11	5.62	4.82	4.79	4.98	4.85
N(명)	84	376	72	391	141	114	172

- ‘수도권 소재 직장 선호’에 대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의 56.1%가 선호하는 반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는 16.7%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소재 직장 선호’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 보다 40% 정도 더 높은 수준임.

- 대학 소재지별 최소 기대 월급은 수도권 소재지 174.3만원, 비수도권 소재지 168.0만원으로 수도권 소재지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소재지 대학 졸업자 보다 6.3만원 높게 나타남.

<표 4> 취업준비('예' 비율): 대학 소재지별

(단위: %)

문항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
수도권 소재 직장 선호	56.1	16.7
서울 강남 소재 직장 선호	5.8	2.2
도시 소재 직장 선호	45.8	29.3
사회적 인정 직장 선호	39.5	26.2
중소기업 비선호	16.6	11.4
대기업, 외국계 기업 선호	9.7	5.8
공기업, 공무원 선호	4.3	5.4
육체적 힘든 일 비선호	40.4	36.0
학벌, 학력 수준 적합 직장 선호	44.3	36.9
전공분야 일치 직장 선호	27.1	30.6
정규직 선호	70.0	63.9
사무직 선호	26.9	22.4
주 5일 근무 직장 선호	52.8	42.2
통근 수월 직장 선호	69.2	53.8
근무시간 불규칙 직장 비선호	67.7	63.0
최소 기대 월급(만원)	174.3	168.0
15개 문항 총점(점)	5.76	4.46
N(명)	517	915

▣ 여성의 취업준비는 남성 보다 높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는 비수도권에 비해 취업준비가 높음.

- 2년제와 4년제 모두 공통으로 취업준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성별과 대학소재지임.
  - 두 집단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취업준비가 높고,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준비가 높음.

- 2년제 졸업자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경험이 없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준비능력이 높음.
- 4년제 졸업자의 경우 거주지 규모, 대학전공계열이 취업준비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읍면지역 보다 특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취업준비능력이 높고, 이에 반해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취업준비능력이 낮음.
  - 대학전공계열에서도 예체능 계열에 비해 공학계열의 응답자들의 취업준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취업준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년제 대졸자		4년제 대졸자		전체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상수)	3.580	.011	.643	.668	1.830	.064
성별(남)	-1.466	.000	-.990	.004	-1.237	.000
출신고교(일반고)	.483	.065	.636	.106	.719	.000
대학 전공(인문계열)	.172	.808	.247	.660	.069	.866
대학 전공(사회계열)	.060	.876	.500	.272	.379	.186
대학 전공(교육계열)	.215	.756	1.060	.072	.797	.063
대학 전공(공학계열)	.194	.604	1.117	.021	.622	.035
대학 전공(자연계열)	.131	.785	.124	.819	.105	.766
대학 전공(의약계열)	.203	.654	.232	.742	.242	.517
대학소재지(수도권)	.692	.012	.767	.010	.740	.000
현 취업상태(상용직)	.156	.631	.283	.362	.224	.309
현 취업상태(임시직, 일용직)	.274	.572	-.341	.445	-.147	.650
임시직, 일용직 경험 여부(예)	-.594	.027	.234	.435	-.220	.261
구직 실패 횟수	.010	.873	.008	.674	.011	.542
구직활동기간	.004	.559	.007	.431	.005	.334
자격증 수	.171	.019	.051	.562	.109	.049
해외연수 경험 여부(예)	1.648	.001	.634	.187	1.022	.003
거주지 규모(특별시)	.822	.064	1.735	.000	1.282	.000
거주지 규모(광역시)	-.217	.582	1.013	.039	.330	.283
거주지 규모(시)	.108	.782	.783	.090	.433	.143

<표 계속>

	2년제 대졸자		4년제 대졸자		전체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부 학력(고졸)	.006	.982	.157	.620	.084	.674
부 학력(2년제 대졸 이상)	.326	.409	.415	.274	.431	.104
월평균 가구 소득	.137	.583	.401	.096	.314	.065
N	571		590		1161	
R <sup>2</sup>	0.151		0.096		0.132	

\* 종속변수: 취업준비가 14개 문항 총합(총 15개 문항 중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 문항 제외)

▣ 실제 월급과 최소 기대 월급을 비교하면 실제 월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KEEP에서는 기대월급을 ‘나는 월급이 최소 \_\_\_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로 질문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sup>14)</sup>와는 달리 실제월급이 최소 기대 월급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유형별로 남성과 여성의 최소 기대월급을 살펴보면, 2년제 남성은 178만원, 여성은 145만원이며, 4년제 남성은 202만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148만원으로 2년제 여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실제 월급의 경우 남성은 2년제 보다 4년제 졸업자의 월급이 높으나, 여성의 경우 2년제 대졸자의 월급이 4년제 대졸자보다 높음.
  - 이는 2년제 여성졸업자의 경우 노동시장에 나온 기간이 길어, 경력으로 인한 월급상승분으로 판단됨.
- 대학유형과 성별로 실제월급과 최소 기대월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2년제 남성 대졸자의 차이(12.4만원)가 가장 컸고, 4년제 여성 대졸자의 월급차(1.1만원)가 가장 적음.

14)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7GOMS1) 자료 분석에 의하면, 기대월급이 실제월급보다 높는데 본 분석에서의 차이점은 설문문항의 워딩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는 취업을 통해 최소한 받고자 하는 월급에 대해 질문하였고, KEEP에서는 취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최저 월급을 응답하게 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임.

<표 6> 실제 월급과 최소 기대 월급 비교: 성별 (단위: 만원)

		실제 월급	최소 기대 월급	실제 월급 - 최소 기대 월급
2년제 대졸자	남자	191.3	178.4	12.9
	여자	152.5	145.3	7.2
	전체	174.4	164.0	10.4
4년제 대졸자	남자	214.3	201.9	12.4
	여자	149.2	148.1	1.1
	전체	189.9	181.7	8.2
전체	남자	202.5	189.8	12.7
	여자	151.1	146.5	4.6
	전체	181.6	172.2	9.4

- 대학소재지별 최소 기대월급을 살펴보면, 4년제 수도권 졸업자가 198만원으로 가장 높고, 2년제 수도권 대졸자가 161만원으로 가장 낮음.
  - 실제 월급은 2년제 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4년제 수도권 졸업자가 212만원이고, 비수도권은 179만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대학소재지별 월급을 비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실제월급이 최소 기대월급보다 높으며, 특히 4년제 수도권 졸업자의 월급차가 14만원으로 가장 컸고, 4년제 비수도권 졸업자는 5만원으로 월급차가 가장 적음.

<표 7> 실제 월급과 최소 기대 월급 비교: 대학 소재지별 (단위: 만원)

		실제 월급	최소 기대 월급	실제 월급 - 최소 기대 월급
2년제 대졸자	수도권	173.3	161.3	12.0
	비수도권	175.9	166.4	9.5
	전체	174.9	164.6	10.4
4년제 대졸자	수도권	212.3	198.2	14.1
	비수도권	178.5	173.3	5.2
	전체	189.9	181.7	8.2
전체	수도권	191.0	178.0	12.9
	비수도권	177.1	169.7	7.5
	전체	181.9	172.6	9.3

- 최소 기대월급이 높은 대학전공은 2년제와 4년제 모두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이며, 실제 월급이 가장 낮은 계열은 2년제에서는 교육계열로 124만원이고, 4년제에서는 예체능계열로 149만원임.
- 대학전공별 월급을 비교하면, 2년제 졸업자 중 교육계열은 실제월급보다 최소 기대월급이 더 높으며, 4년제 대졸자의 경우는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실제월급보다 최소 기대월급이 더 높아 다른 집단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음.

<표 8> 실제 월급과 최소 기대 월급 비교: 대학 전공계열별 (단위:만원)

		실제 월급	최소 기대 월급	실제 월급 - 최소 기대 월급
2년제 대졸자	인문계열	166.1	158.8	7.4
	사회계열	161.9	152.5	9.4
	교육계열	124.3	132.0	-7.6
	공학계열	190.8	170.0	20.8
	자연계열	163.9	156.5	7.5
	의약계열	177.7	172.3	5.5
	예체능계열	171.9	167.6	4.3
	전체	173.5	162.7	10.8
4년제 대졸자	인문계열	169.9	160.6	9.3
	사회계열	187.1	176.8	10.3
	교육계열	192.6	180.0	12.6
	공학계열	209.4	192.4	16.9
	자연계열	184.0	175.8	8.2
	의약계열	208.2	219.1	-10.9
	예체능계열	148.6	160.0	-11.4
	전체	190.0	180.9	9.2
전체	인문계열	169.2	160.2	9.0
	사회계열	176.1	166.2	9.9
	교육계열	161.8	158.3	3.5
	공학계열	199.3	180.2	19.1
	자연계열	174.8	166.9	7.9
	의약계열	185.3	183.9	1.4
	예체능계열	163.6	164.9	-1.3
	전체	181.5	171.5	10.0

## IV. 결 론

- 대졸 청년층의 취업준비가 중 '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66.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근무시간 규칙 직장 선호'(64.9%), '통근 수월 직장 선호'(59.6%), '주 5일 근무 직장 선호'(46.2%)가 높게 나타남.
  - 대졸 청년층은 취업시 고용 안정성과 '근무시간, 통근 거리, 주 5일제 근무 등' 근무 환경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졸 청년층의 최소 기대 월급은 170만원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이 186.9만원, 여성이 146.8만원임.
  - 최소 기대 월급 170만원은 현 취업자의 실제 월급 181.6만원 보다 11.6만원 적은 수준이며, 이는 실제월급의 93.6% 수준임.
  - 여성의 최소 기대 월급은 남성의 최소 기대 월급의 78.5% 수준임.
- '성별', '대학소재지', '대학전공계열', '임시·일용직 경험', '자격증 수', '해외연수 경험', '거주지 지역 규모' 등이 취업준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준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고,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보다 높음.
  - 임시·일용직 경험이 없거나,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또는 해외연수 경험이 있을수록 취업준비는 높음.
  - 팬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졸업 전부터 학업보다는 각종 자격증 취득과 어학연수 등 스펙 쌓기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현 취업자들의 실제월급과 최소 기대 월급을 비교해 보면, 실제 월급(181.6만원)이 최소 기대 월급(172.2만원) 보다 9.4만원 더 높게 나타남.
  -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실제월급이 최소 기대월급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설문문항<sup>15)</sup>이 취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최저 월급을 응답하게 한 결과로 보여짐.

15) 최소 기대 월급 문항을 '나는 월급이 최소\_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고 질문하였음.

## 참고문헌

- 김동규(2011). 「대졸 청년층의 눈높이와 일자리 경험이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201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 신선미·민무숙(2010). 「대졸 청년층 하향취업자의 하향취업 상태 변화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3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심재훈·황인창(2010). 「대졸자의 눈높이와 노동시장 성과」, 201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 최영섭(2003). 「대학이상 졸업자의 계열별 기대소득 격차에 대한 분석」, 제26권 제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통계청.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 <http://kostat.go.kr>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설문지 및 데이터.
- <http://survey.keis.or.kr>
-